

# 다산포럼

조영철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와 1원 1표의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 원리는 작동원리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1인 1표의 민주주의와 1원 1표의 자유시장경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즉 민주주의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정주의를 제시하고 국가가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시장경제의 1원 1표 원리가 주로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소비자 주권을 의미했던 시대에는 1원 1표의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 이후에는 1원 1표 원리가 소비자 주권의 소박한 수준을 넘어서 자본의 이탈 권력(exit power)을 의미하게 되었다. 개인과 기관의 자산 위락 경향으로 자본시장은 과거보다 더 집중되고 위계화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 발달로 투자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미줄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다. 금융자산을 실제로 운영하는 금융 엘리트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정신과 신고전파 경제학이란 분석도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휘 없이도 동일한 방향으로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자본투자자들이 특정한 경제정책이나 경제상황을 거부하는 “자본파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행동금융학(behavioral finance)은 자본시장의 투자자 행동이 반드시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자본파업”의 이탈 권력이 아무 때나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 시대정신을 어기는 정책이 세계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나타났을 때 이에 반발하는 투자자들의 군집심리가 일단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눈덩이 효과는 이성으로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 돼버린다. 자본파업은 예측하기 힘든 군집행동이기에 때문에 더 무서우며,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융중심지 시티를 보유한 영국도, 부

패가 가장 적고 경제사회의 투명성도 가장 높다는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모두 금융자유화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다. 자본 군집행동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막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건전성과 물가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 시대에 대한 국민국가의 정책 자율성이 제약 받는다고 점점 짚어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신

계(time horizon)의 정치인들, 포퓰리즘과 정치 부패에 의해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소란스러운 민주주의 보다 경제전문가라는 냉철한 후견인(guardian)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학자들 중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듯이 재정정책도 재정정책위원회를 만들어 경제전문가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플라톤의 철인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경제전문가가 결정할 정책이 실패한 경우 정책 실패의 모든 책임은 결국 정치가, 민주주의가 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나갈 길은 전문가나 철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대중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민주선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불안정하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지만, 공동체를 관리하는 최선의 제도다.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규율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지 민주적 토론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밖에 없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다산연구소장>

##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한 선희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간(1일~7일)이 있어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사회 한편에서는 일부 어른들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가정불화·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많은 가정에서 해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는 85%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대 주요 원인

에서 학대받고, 방임의 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더 이상 가정 일로만 맡겨 둘 수 없다. 이제는 마음속의 보금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아동의 상처를 씻어 줄 사회 내 치료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른들의 보호와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의식상태 불명 후 사망하거나 자신의 일생에 장애물이 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죽인 후 바다에 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아동 치료 시스템 구축해야

은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기술부족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 대부분 아동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 주지 않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면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역할 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손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인생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나 가족 간의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비행·가출·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져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정 내

자녀를 단지 보호대상으로 간주돼 왔을 뿐,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데 매우 미약하여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생각은 훈육이 아닌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현 아동복지법으로 아동학대의 가해자를 상담하고 가정 내 피해 아동 보호 등 법적 제도의 강화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치료하며 특히 그것을 예방하여 우리 사회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임을 알고 가정, 사회 및 국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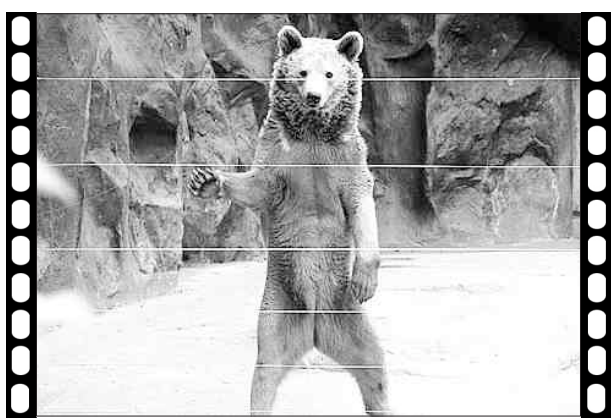
## 차량에 LPG 충전시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했으면

LPG 차를 타고 가는데 히터를 트니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 LPG 충전소에 들어가 엔진 덮개를 열고 가스 누출탐지기를 대보니 경보음이 울렸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안쪽 틈에서 고압가스가 새 냄새가 나는 거라고 했다. 정비소에서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해보니 역계가스를 기체로 바꿔주는 기화기 부분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히터를 틀고 차량 안의 공기질을 측정해보더니 탄화수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건 엔진룸에서 새는 LPG가 차량 내부로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다. 원래 LPG차를 살 때 LPG 충전소에서는 충전할 때마다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측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들었지만 충전소에서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다. 휘발유보다 2배의 폭발 위험이 있고, LPG 가격이 점점 가격이 포함돼 있는데 점검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LPG가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LPG 충전소들의 올바른 영업을 기대한다. ▲정경안·광주시 북구 누문동



## 곰과 마주 쳤을 때



곰과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다. 곰은 어떻게 행동할까. 바로 이 사진과 같은 자세를 취할 것이다. 똑바로 일어서서 괴성을 질러댄다. 그리고 큰 앞발로 후려친다.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주 운이 좋아도 기절하는 정도다. 뺨을 때리더라도 곰은 크고 뾰족한 발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처는 훨씬 크다. 곰은 네 발 동물이지만 정지 동작이나 힘을 모으는 동작을 할 때는 일어서서 공격하는 동물이다. 앞발을 쓰는 것이 손실을 보는 원숭이나 사람처럼 자유롭고 모양 또한 손과 흡사하다. 볼품도 어렸을 때는 나무타기 선수였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나무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무거운 몸무게 탓이다. 반면 반달곰이나 말레이 태양곰의 경

우 몸무게가 50kg 남짓이다.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나무타기를 잘한다. 그렇다면 정말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살까? 사육사 판단으로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곰이지만 산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지 못했는가. 특히 야생에서 혼자 살아가려면 강인하고 영리해야 한다. 다들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은 상태라면 귀찮아서 그냥 가버릴 수는 있겠다. 곰을 만나게 되면 차라리 악을 쓰면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독자마당

### 모유수유 계획중인 예비 엄마들 사전지식 습득 필요

출산이 가까워 오는 예비엄마들은 출산준비와 함께 산후조리도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비엄마들이 ‘우리 아기는 건강하게 키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유수유를 생각할 거고 ‘나는 모유수유가 가능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출산에 임할거라 생각한다. 모유수유는 출산 후 산후조리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 산모들은 출산 후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한다. 예를 들면 잦은 수유로 인한 산모의 수면 부족, 최초 수유시점을 놓쳐 젖몸살을 앓고 모유량이 줄어드는 경우, 경련 또는 함몰 유두여서 아기가 젖을 빨기 힘든 경우, 젖병

사용으로 인해 아기의 유두혼동으로 젖을 빨지 않는 경우, 모유량이 적어 혼합수유로 점점 모유량이 줄어드는 경우 등 다양하다. 모유수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산후조리에 있어서 모유수유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모유수유에 대한 스트레스는 산후조리 기간 내내 산모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산후조리 또는 모유수유, 혹은 두 가지 모두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모유수유를 할 계획이라면 모유수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해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조리법을 선택하면 모유수유도 성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의동

## 시설

### 무너진 기초질서 확립 단속이 관건이다

한편 무너진 광주시의 기초질서 문화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엉망이 된 기초질서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불법광고물 부착, 담배꽂초 및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다.

최근 엉망이 된 광주의 기초질서는 당국의 방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불법 주·정차만 해도 그렇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가 도시공사에서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수 개월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상 단속도 ‘반짝 단속’ 등 형식이 그치고 있다. 오히려 단속이 실시 이후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기초질서 유지에 소극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기초

질서 위반 사범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단속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단속의지가 없어서인지 단속다운 단속을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과속·난폭운행에 신호까지 예사로 무시하며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마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초질서 확립은 위반자에게 강력한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클린 시티’로 정착한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엄정한 단속이 반드시 선행돼야 가능하다. 법을 어기면 단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공공질서 유지는 공공력의 최소한의 의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2개의 차로를 점거해도 단속이 없는 곳이 최근 광주의 모습이다. 이는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지자체와 경찰은 존재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 ‘親盧-非盧’ 싸움 격화...국민 안중에 없나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 다. 이른바 친노(親盧)파와 비노(非盧)파간 싸움이 격화되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찾아볼 수 없다. 정치가 아무리 현실이더라도 한 때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졌던 모습은 간데 없고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노무현 대통령의 복당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 등의 2차 집단 탈당이 결행될 경우 노 대통령이 ‘복당을 해서라도 당을 지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정 전 의장이 탈당을 하겠다고 해서 이를 민투하고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도 한복판에 있다. 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 자격’으로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의 해산을 주장하고 경선참여 포기를 선언한 것은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어

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는 정치판이라지만 한일상대가 짝이 없다.

기본적인 정치 도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지는 오래 됐다. 지난날의 범여권은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생정치모임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그들이 내건 이념이나 명분은 흔적도 없고 상대방 흡입내기에 한창이다. 통합신당모임이 7일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출범시키고 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대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치권이 이전투구를 벌이면 국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지켜주기 바란다. ‘난장판 정치’를 보는 국민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점에 달했다. 정치권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無等鼓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에서 은퇴한 이만수(49)는 이듬해인 1998년 3월 야구를 배운다며 자비를 들여 미국으로 건너갔다. 아무 연구없이 갔으니 흠대 받는데는 당연한 일. 맨 먼저 찾아가는 리틀랜드 마이너리그의 미국인 코치는 키 175cm의 이만수가 한국에서 훈련왕을 했다는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코치는 공 10개를 던질 테니 1개라도 펜스를 넘겨보라고 시비를 걸었다. 배트를 놓은 지 6개월이 지난 지라 걱정이 됐지만 그나마 사들 말미를 준 게 고마웠다. 테스트 당일, 첫 번째 공을 받아쳤는데 펜스를 맞았다. 긴장속에 나머지 9개를 쳤는데 무려 7개가 담장을 넘어갔다.

## 팬티 선물



자존심 상한 코치가 그대로 물러날 리 만무했다. 그는 “우연이다. 바람 때 문이다. 내일 또 하자”고 덤벼들었다. 다음날은 한 술 더 떠 10개중 8개를 개운하게 넘겨버렸다. 이만수는 헬크, 떠벌이, 최고의 포수, 훈련왕 등으로 기억되는 한국 최고의 야구선수 중 한 사람이다. 한국프로야구

1호 안타, 1호 홈런, 22년 만에 2호가 나올 정도로 귀한 최초의 타격 3관왕, 3년 연속 홈런왕, 최초의 통산홈런 250개 등 그가 세운 신기록은 부지기수다.

9년동안 미국야구를 배운 그가 올해 SK 와이번스의 수석코치로 한국 프로야구판에 다시 돌아와 새바람을 불릴 일이고 있다. 한국식 걸레차 권위를 모두 벗어 던져버렸다. 아들딸되는 20대 초반 선수들과 떠돌고 웃으며 훈련하고 그들에게 ‘코치님’이라 부르지 말고 ‘만수야’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관중들에게 맨 먼저 인사하고 사인도 해주며 그들을 위해 춤까지 춘다. 지난날 29일에는 “앞으로 열리는 10번의 문학경기(SK홈장)에 만난 관중이 차분 속웃만 입고 그라운드를 돌겠다”고 팬들에게 선언했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팬티 10장이 선물로 도착했는데, 팬들을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았고 배제한 ‘멋진 이만수’는 그 속속도 지키리라 본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인국내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금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